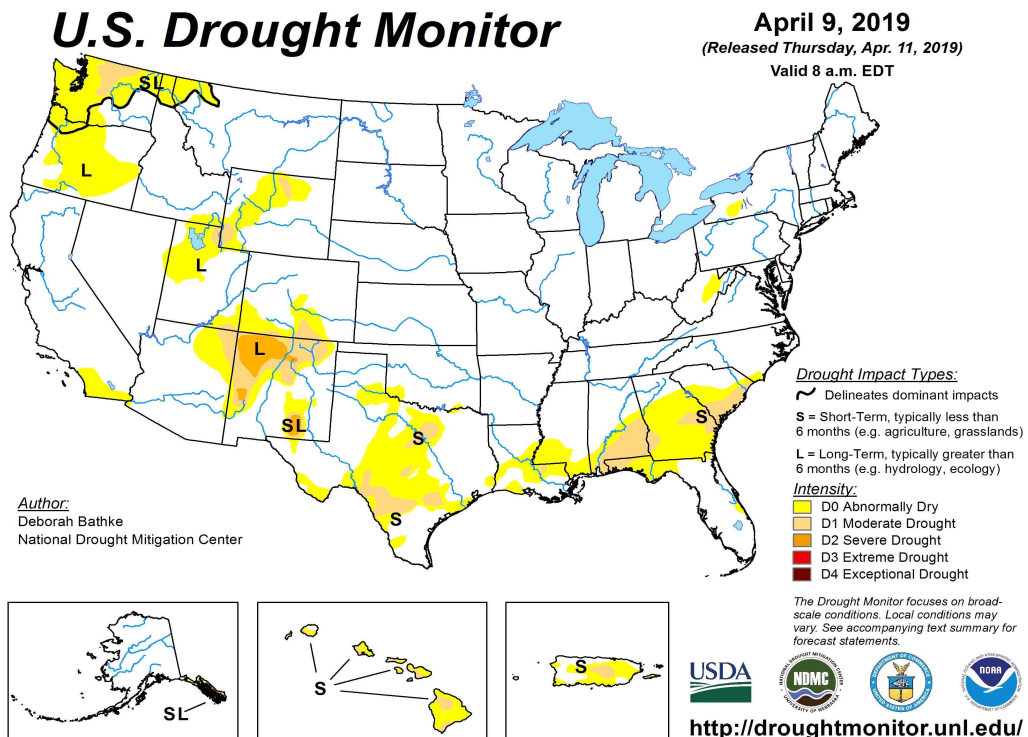


4월 1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55)

□ 미국 기후 현황(4/7~4/13)

북서부와 중서부 위쪽에 심한 강우가 내리면서 봄철 폭풍이 강해졌다. 주말에는 남부를 가로질러 심한 소나기와 뇌우가 휩쓸었다. 북서부에 내린 강우로 북 캐스캐이드 산맥 같은 북부 유역에서는 물-공급 문제가 완화된 반면, 서-오레곤에서는 주초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후 4월 10-12일부터 겨울 같은 폭풍이 중서부 위쪽을 강타하여 바람을 동반한 강한 눈보라를 일으켰다(지역적으로 1-2 피트 이상). 4월 10일에는 폭풍의 영향이 대평원 남쪽과 남서쪽까지 뻗어가 먼지를 일으켜 가시도를 낮추었다. 주간 평균 온도는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 전역으로는 평년 대비 5° F 낮았지만 오하이오 계곡을 비롯해서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의 주들에는 많은 구역이 평년 대비 최소 10° F 이상이었다. 4월 11-12일에는 텍사스 북부 ‘팬핸들’ 지역만큼이나 먼 남쪽에 있는 고원에서는 폭풍 이후 온도가 32° F 이하로 내려갔다. 4월 13-14일에는 평원 남동부에서부터 테네시 계곡에 이르기까지 세찬 강우가 내렸다(지역적으로 2-4 인치 이상). 미시시피 계곡 아래쪽과 주변에도 가장 강한 비가 퍼부어 내리면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일어났다. 두 타 이상의 토네이도가 일어났던 심한 뇌우가 동텍사스에서부터 앨라배마에 이르는 지역을 휩쓸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서부에 이르기까지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고 위에 언급했던 폭풍이 있었다.



## □ 농업 현황 요약(4/8~4/14)

북부 평원의 많은 곳에 걸쳐서 눈이 내렸던 반면,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수분이 남동부에 비를 내렸다. 하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기타 남동부 아래쪽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가장 건조한 지역 몇 곳에서는 반 인치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남동부와 대서양 중간에 있는 주들에서는 평균 온도가 평년 대비 4° F 이상이였다.

## □ 세계 기후 현황(4/7~4/13)

■ 유럽: 남유럽에는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대조적으로 북쪽 재배 지역들에는 햇볕이 많았고 온도가 평년과 비슷했다. 이탈리아와 이베리안 반도에서는 두 번째 주 연속 광범위한 소나기로 (8-60 mm) 가뭄 걱정이 줄어들었고 생식생장부터 겨울 곡물의 출수 때까지 필요한 토양 수분량은 나아졌다. 먼 동쪽 헝가리와 발칸 지역에서는 아주 필요했던 중간~강한 강우 (10-70 mm)가 널리 내리면서 단기 가뭄을 완화시켰고, 영양 성장 중인 겨울 작물들에게 필요한 토양 수분을 개선시켰다. 하지만 헝가리에서는 장기 수분 결핍이 여전히 90일 총강수량은 정상의 50-75%였다. 북유럽의 많은 곳에서는 햇볕이 많았고, 정상의 1-2° C 이하로 날씨가 서늘하여 겨울 작물의 영양 성장에 유리했고, 현재의 토양 수분은 밀과 유채의 발달에 호조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1-20 mm)가 먼 북쪽에서는 좋은 조건을 유지했고 아주 건조한 가을 때문에 생긴 프랑스 중앙 지역의 장기 수분 결핍을 완화시켜주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날씨가 따뜻하여 겨울밀의 발달이 가속화되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건조에 대한 걱정이 적어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걸친 평균 온도는 정상보다 7° C까지 높아서 밀이 초기 영양발달 단계를 거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의 불가 구역에 쌓여있는 설피가 녹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서 보고된 중간~심한 소나기 (10-50 mm)는 단기 건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고, 밀의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주었다. 남러시아에 내린 약함~중간 정도의 소나기 (미량~12 mm)는 지역별로 겨울밀에 필요한 표토 수분을 공급해주는 정도였지만 주요 겨울밀 주들의 북쪽에는 보다 강한 비 (지역적으로 25 mm 이상)가 내렸다.

■ 동아시아: 동중국의 밀 지역에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10-25 mm, 지역적으로 이 이상)가 널리 내림으로써 생식생장 중인 작물에게 유익한 수분을 공급했다. 대개 밀에는 관수를 하지만 종종 내리는 봄비는 환영이다. 한편 양쯔강 계곡과 남동부 전역에는 이보다 높은 총강수량 (25-50 mm 또는 그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여기서 공급된 수분은 일모작 벼의 파종을 촉진했고, 생식 성장 중인 유채뿐만 아니라 영양성장 중인 조생종 벼에 유익했다. 게다가 남부 전역의 온도는 일상적으로 평년 이상이어서 보통보다 작물의 발달이 더 빠르게 진전되었다.

■ 호주: 국지적으로 내린 소나기 (대개 5 mm 이하)로는 남퀸슬랜드와 북뉴사우스웨일즈에 추가적으로 가뭄 해소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건조한 날씨 덕분에 포장 작업이 빠른 보폭으로 진행되었다. 목화와 수수의 수확이 지연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밀과 기타 겨울 작물 파종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밀 벨트의 다른 곳에서는 남동호주와



서호주 전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대개 5 mm 이하). 겨울밀과 유지작물 종자들을 심기에 앞서서 표토를 적시려면 밀 벨트 전역에 비가 더 많이 와야 한다. 평균 온도는 정상의 1° C 이내이기 때문에 주요 작물 생산 지역의 온도는 대체로 계절에 맞는 편이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햇볕이 많은 날씨는 거의 모든 주요 농장 지대에서 여름작물의 건조 및 수확 작업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집중된 중간 정도의 비 (10 mm 이상)가 내린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강우가 기록되지 않았다. 북아르헨티나에서는 성숙하고 있는 목화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특히 환영받았다.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주간평균온도가 정상 근처이거나 높아서 서늘한 조건이 시작되기 전인 주초에는 낮 최고 온도가 라 팜파,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르도바에 있는 인근 위치에서 낮은 섭씨 30도 대에 도달했다. 밤 최저 온도는 주말에는 잠깐 5° C 이하로 떨어졌지만 광범위한 결빙은 기록되지 않았다. 주간 평균 온도는 북쪽에서는 정상에 가까웠던 반면 매일 낮 최고온도의 범위는 섭씨 20도 대 중간에서부터 낮은 30도 대 사이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4월 11일 현재 해바라기의 수확량은 93% 끝났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85%였다; 옥수수는 전국적으로 24% 수확되었는데, 이는 작년 대비 8% 정도 뒤쳐진 것이다

■ 브라질: 강한 소나기가 계속해서 널리 내리면서 중앙 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목화 전망이 계속 좋았다. ‘마토 그로소’ 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가는 지역의 많은 곳에서 총 강수량이 50-100 mm 이상이었었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최소 25 mm 이상을 기록했다. 남동브라질 ( ‘히우그란지두술’ 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미나스제라이스’ 까지) 에서도 중간~심한 강우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려서 2모작 옥수수 및 사탕수수, 커피, 기타 작물에게 필요한 수분 비축량을 상승시켜주었다. 며칠 전에 폭풍 전선은 남동브라질의 서쪽에 아주 필요했던 비를 내려주었는데, 이 비가 없었던 장소들에서 대두된 건조 문제는 주초에 남동부에 내린 비로 완화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4월 8일 현재, 2모작 옥수수의 60%가 생식에 도달했고 콩과 1모작 옥수수의 수확은 90% 이상 끝났다.